Ⅰ.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2017년 2/4분기 미국(3.1%)과 중국(1.7%), 일본(2.5%), 유로지역(2.6%)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미국 1.9%p, 중국 0.4%p, 일본 1.3%p, 유로지역 0.4%p)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상승함

○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과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6.9%)은 투자 둔화에도 수출 증가로 성장세가 유지됨

○ 일본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4.2%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일본을 제외하고 동반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0.8%를 기록하고, 국제유가(두바이 48.5, WTI 50.0)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88.3)은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발표에도 크게 변하지 않음

□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의 세제개편 지연,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임

■ 2017년 2/4분기 미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전분기보다 1.9%p 상승한 3.1%(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 경제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2.5%(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회복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2.6%(연율)을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1]	3.4	3.2	n.a.	n.a.		n.a.		n.a.	
선진국[1]	2.2	1.7	n.a.	1.5		2.1		2.1	
신흥국[1]	4.3	4.3	n.a.	4.2		4.2		5.2	
미국[2]	2.9	1.5	0.5	0.6	2.2	2.8	1.8	1.2	3.1
중국[3]	6.9	6.7	1.7	1.3	1.9	1.8	1.7	1.3	1.7
일본[4]	1.1	1.0	-0.9	2.1	2.0	0.9	1.6	1.2	2.5
유로지역[5]	2.1	1.8	1.8	2.0	1.4	1.8	2.6	2.2	2.6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9)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7)
4) 일본 내각부(2017. 9)
5) Eurostat(2017. 10)

■ 2017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1)]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미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99.7을,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4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1임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99.5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1)]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2)]	99.8	99.5	99.5	99.4	99.4	99.5	99.7	99.8	100.0
선진국[3)]	100.1	99.6	99.8	99.6	99.6	99.6	99.8	100.0	100.0
미국	100.1	99.6	99.4	99.1	99.1	99.1	99.4	99.7	99.7
유로지역	100.3	99.2	100.3	100.1	99.9	99.9	100.0	100.2	100.4
일본	100.2	99.7	99.9	99.7	99.6	99.7	99.9	100.1	100.1
중국	99.7	99.2	99.3	99.2	99.2	99.2	99.1	99.1	99.5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4.2%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3.4%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5.2%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1.9	1.4	1.3	0.6	1.6	1.1	2.2	4.0	4.2
선진국	2.7	1.5	1.6	1.3	1.3	1.5	1.7	2.1	3.4
신흥국	0.8	1.2	0.9	-0.4	2.0	0.6	2.8	6.6	5.2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0.8%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2.5%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3.9, 4.6 하락한 48.8, 47.9이고, CRB 상품지수[2]는 10.4 하락한 179.5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1](%)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2]				
	2016			2017			2016			2017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n.a.	n.a.	n.a.	n.a.	n.a.	두바이 현물지수	42.1	43.0	48.5	52.7	48.8
선진국	1.0	1.4	1.7	2.3	0.8	WTI 현물지수	44.5	44.8	50.0	52.5	47.9
신흥국	3.5	3.4	2.8	3.0	2.5	CRB 상품지수[2]	180.6	184.1	188.3	189.9	179.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2017. 10);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7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1.9%p 상승한 3.1%를 기록함
- ○ 민간소비(3.3%)와 민간투자(3.9%)는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경기확장세가 지속됨
- ○ 수출(3.5%)과 수입(1.5%)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0.3%)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18.1)는 상승함
- ○ 산업생산 증가율(1.4%), 설비가동률(76.6), 경기선행지수(127.2)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5.8)는 하락함
- ○ 실업률(4.4%)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56만 2천 명)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1.9%)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0%)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1.46%, 10년물 2.26%)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1.9%p 상승한 3.1%를 기록함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상승한 3.3%를 기록함
-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5.1%p 상승하며 3.9% 증가함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8%p 하락한 3.5%이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하락한 1.5%를 기록함
-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2%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9	1.5	0.5	0.6	2.2	2.8	1.8	1.2	3.1
민간소비	3.6	2.7	2.7	1.8	3.8	2.8	2.9	1.9	3.3
재화	4.6	3.7	2.8	2.1	6.0	3.2	4.7	0.7	5.4
서비스	3.2	2.3	2.6	1.7	2.8	2.7	2.1	2.5	2.3
민간투자	5.2	-1.6	-6.2	-4	-2.7	2.4	8.5	-1.2	3.9
설비	2.3	-0.6	-5.1	-4.0	3.3	3.4	0.2	7.2	6.7
주택	10.2	5.5	7.3	13.4	-4.7	-4.5	7.1	11.1	-7.3
수출	0.4	-0.3	-2.3	-2.6	2.8	6.4	-3.8	7.3	3.5
수입	5.0	1.3	0.0	-0.2	0.4	2.7	8.1	4.3	1.5
정부지출	1.4	0.8	0.3	1.8	-0.9	0.5	0.2	-0.6	-0.2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9), BEA

〈소비부문〉

■ 2017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0.3%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0.6 상승한 118.1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감소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8%p 하락한 -5.7%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5.0 상승한 199.0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1] (%)	2.6	3.0	0.3	-0.1	1.5	1.0	1.5	1.0	0.3	0.3	-0.2
소비자신뢰지수[2]	98.0	99.8	96.0	96.0	94.8	100.7	107.8	117.5	118.1	120.0	120.4
신규주택착공호수[3](%)	10.6	6.3	-3.2	2.6	0.4	-0.7	8.6	-0.9	-5.7	-2.2	-0.8
주택가격지수[4]	179.3	188.7	182.5	183.2	188.2	191.4	192.0	194.0	199.0	202.0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는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1.4%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8 상승한 76.6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1.2 하락한 55.8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1.3 상승한 127.2를 기록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1](%)	-0.7	-1.2	-0.9	-0.3	-0.2	0.2	0.2	0.4	1.4	0.4	-0.9
설비가동률[2]	77.7	76.3	76.0	75.8	75.7	75.8	75.8	75.8	76.6	76.9	76.1
ISM제조업PMI	51.4	51.5	48.7	50.0	51.5	51.1	53.3	57.0	55.8	56.3	58.8
경기선행지수[3]	121.8	123.3	122.8	122.4	122.9	123.5	124.2	125.9	127.2	128.3	128.8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4.4%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8.5%를 나타냄

○ 비농업취업자는 56만 2,000명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보다 6만 4,000명이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4,000명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1.9%,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8%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5%p 하락한 3.0%,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2%p 상승한 1.9%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1]	5.3	4.9	5.0	4.9	4.9	4.9	4.7	4.7	4.4	4.3	4.4
포괄적 실업률(u-6)[2]	10.4	9.6	9.9	9.8	9.7	9.7	9.3	9.2	8.5	8.6	8.6
비농업취업자 증감[3]	271.3	224.0	83.2	58.8	49.3	71.6	44.3	49.8	56.2	13.8	16.9
실업수당 청구자 수[4]	27.8	26.3	26.9	27.2	26.8	25.8	25.3	24.6	24.2	24.2	23.7
소비자물가 상승률[5]	0.1	1.3	0.5	1.1	1.0	1.1	1.8	2.5	1.9	1.7	1.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5]	1.8	2.2	2.0	2.2	2.2	2.2	2.1	2.2	1.8	1.7	1.7
생산자물가 상승률[6]	-3.3	-1.0	1.0	-1.8	-1.9	-1.3	1.0	3.5	3.0	2.2	2.9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6]	2.0	1.5	1.8	1.6	1.6	1.3	1.6	1.7	1.9	1.8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1.46%, 10년물, 2.26%)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하락한 1.46%,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한 2.26%임

○ FOMC는 예상대로 2017년 6월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연내 자산축소 계획도 공개함[4)]

- 연방준비위원회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계획은 최초 국채 60억 달러 및 MBS 40억 달러를 월별 만기상환 한도로 설정하고 최종한도가 각각 300억 달러 및 200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분기마다 60억 달러, 40억 달러씩 상향될 예정임[5)]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1.01	1.00	1.13	1.03	0.91	0.84	1.23	1.51	1.46	1.54	1.47
국채 10년물	2.13	1.84	2.18	1.92	1.74	1.56	2.13	2.44	2.26	2.31	2.21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4) 김윤경 · 권도현 · 김효진(2017. 6. 15), "[6월 FOMC], 금리인상, 연내 자산축소 계획 발표", 국제금융센터
5) 자본시장연구원(2017. 9), 『자본시장리뷰 2017 가을호』

나. 중국경제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9%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10.8%)은 전분기보다 하락, 소비자신뢰지수(114.8)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산업생산 증가율(6.9%)과 구매자관리지수(51.4)는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5.8%)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중국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채금리(3년물 4.16%, 10년물 4.50%)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6.862위안/달러)은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달러대비 강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7%,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9%로 나타남
-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8.7%를 기록함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8.6%를 나타냄
  - 미국, 유로지역, 일본에 대한 선진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신흥국 수출은 둔화됨[6)]
-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7%p 감소한 14.2%를 기록함

6) 이상원 · 이치훈(2017. 7. 17), "2017년 2분기 성장률과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1)]	6.9	6.7	1.7	1.3	1.9	1.8	1.7	1.3	1.7
			(6.8)	(6.7)	(6.7)	(6.7)	(6.8)	(6.9)	(6.9)
고정자산투자[2)]	11.4	9.0	10.1	10.5	9.7	8.1	8.2	8.7	8.7
수출 증가율[3)]	-1.1	-7.6	-5.2	-11.9	-6.3	-6.9	-5.2	7.0	8.6
수입 증가율[3)]	-14.2	-5.6	-11.6	-13.9	-6.9	-4.1	2.3	24.9	14.2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7. 7); Bloomberg

〈소비부문〉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0.8%를 나타냄
-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8 상승한 114.8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1)](%)	10.6	10.4	11.1	10.5	10.2	10.5	10.6	10.9	10.8	10.4	10.3
소비자신뢰지수	105.9	104.4	103.9	102.8	101.2	105.7	108.1	112.0	114.8	114.6	114.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6.9%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51.4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1](%)	6.0	6.2	5.9	6.8	6.1	6.1	6.1	7.6	6.9	6.4	6.0
제조업PMI[2]	49.9	51.6	49.7	49.5	50.1	50.2	51.4	51.6	51.4	51.4	51.7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7]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4%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5.8%를 기록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2.0	1.5	2.1	2.1	1.7	2.2	1.4	1.4	1.4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5.2	-1.3	-5.9	-4.8	-2.9	-0.8	3.3	7.4	5.8	5.5	6.3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7)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2/4분기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달러대비 강세를 시현함[8)]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동일한 4.16%, 국채 1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4.50%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6.862위안/달러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3년물	3.28	3.34	3.39	3.90	3.34	2.86	3.25	4.16	4.16	3.84	3.70
국채 10년물	3.50	3.56	3.52	3.83	3.68	3.24	3.48	4.25	4.50	4.24	3.99
위안/달러	6.284	6.644	6.392	6.539	6.533	6.667	6.833	6.889	6.862	6.773	6.67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8) 이상원 · 이치훈(2017. 7. 17), “2017년 2분기 성장률과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다. 일본경제

□ 2017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공공투자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광공업생산 증가율(2.1%)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소매판매 증가율(0.7%)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43.4)는 전분기와 동일함
-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1.1%)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4.7%)은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 실업률(2.9%)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유효구인배율(1.49배)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5%, 10년물 0.04%)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현상유지 결정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공공투자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9]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 주가 상승의 자산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8%를 기록함
- ○ 주택투자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와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3%를 기록함
- ○ 공공투자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설비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5.6%p 상승한 6.0%를 나타냄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0.5%를 기록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4%를 기록함

9) 손영환(2017. 8. 14), "일본, 2분기 성장률 내수 주도로 연율 4.0% 기록", 국제금융센터 참고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1	1.0	-0.2	0.5	0.5	0.2	0.4	0.3	0.6
			(-0.9)	(2.1)	(2.0)	(0.9)	(1.6)	(1.2)	(2.5)
민간소비	-0.3	0.4	-0.6	0.3	0.1	0.4	0.1	0.4	0.8
설비투자	1.1	1.3	0.1	-0.1	1.4	-0.3	2.0	0.5	0.5
주택투자	-1.6	5.6	-0.8	1.0	3.2	2.8	0.2	1.0	1.3
공공투자	-2.1	-3.0	-1.2	0.0	-0.6	-0.9	-2.4	0.4	6.0
수출	2.9	1.2	-0.4	0.0	-0.9	2.1	3.1	1.9	-0.5
수입	0.8	-2.3	-0.3	-2.0	-1.2	-0.2	1.4	1.3	1.4
정부지출	1.7	1.3	0.7	1.4	-1.3	0.2	0.0	-0.1	0.4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9)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9%p 상승한 2.1%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0.7%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43.4로 집계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2.1%p 하락한 1.1%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3.3%p 감소한 -4.7%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1)]	-1.2	-0.2	0.0	-0.9	0.2	1.6	1.9	0.2	2.1	-0.8	2.1
소매판매 증가율[2)]	-0.4	-0.6	-0.2	-1.3	0.0	0.5	1.5	-0.2	0.7	1.1	-1.7
소비자신뢰지수[3)]	41.3	41.7	42.2	41.3	41.2	42.1	42.2	43.4	43.4	43.8	43.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4)]	1.9	6.4	-0.7	5.5	4.9	7.1	7.9	3.2	1.1	-2.3	-2.0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5)]	4.1	1.7	2.9	4.2	-6.4	5.5	0.3	-1.4	-4.7	-19.3	6.2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유효구인배율[10)]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2.9%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1.49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지며 상승세가 계속됨

■ 2017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4%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3.4	3.1	3.3	3.2	3.2	3.0	3.1	2.9	2.9	2.8	2.8
유효구인배율[1)]	1.20	1.40	1.25	1.30	1.35	1.37	1.40	1.44	1.49	1.51	1.52
소비자물가 상승률[2)]	0.8	-0.1	0.3	0.0	-0.4	-0.5	0.3	0.3	0.4	0.4	0.7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2)]	1.0	0.3	0.8	0.6	0.5	0.2	0.1	-0.1	-0.2	-0.1	0.0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0)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11]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bp 상승한 -0.15%,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하락한 0.04%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0.02	-0.20	0.01	-0.13	-0.24	-0.24	-0.19	-0.18	-0.15	-0.08	-0.10
국채 10년물	0.36	-0.04	0.31	0.07	-0.11	-0.12	-0.04	0.08	0.04	0.08	0.0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1)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라. 유로지역[12)]경제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완화 및 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7%를 기록함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경기체감지수(110.0)와 산업생산 증가율(1.2%)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업률(5.9%)은 전 지역에서(북유럽 6.4%, 동유럽 5.8%, 남유럽 14.8%)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주요국(1.8%)과 남유럽(1.7%)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1.4%)과 동유럽(1.3%)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2/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독일 3년물 -0.67%, 독일 10년물 0.31%, 영국 3년물 0.21%, 영국 10년물 1.06%)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7%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전분기보다 0.1%p상승한 0.9%를 나타낸 반면,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 전분기대비 0.1%p, 0.2%p 하락한 0.6%, 0.3%를 나타내었고, 프랑스, 영국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0.5%, 0.3%를 기록함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증가한 0.5%를 기록함
-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상승한 2.2%를 나타냄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9%를 기록함
-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1.5%를 나타냄
-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5%를 기록함

12)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2.1	1.8	0.5	0.5	0.3	0.4	0.6	0.6	0.7
			(1.8)	(2.0)	(1.4)	(1.8)	(2.6)	(2.2)	(2.6)
민간소비	1.8	2.0	0.5	0.7	0.3	0.4	0.5	0.4	0.5
고정자본투자	3.3	4.5	1.8	-0.4	2.0	0.7	1.8	-0.6	2.2
수출	6.4	3.3	1.0	0.5	1.1	0.6	1.5	1.3	0.9
수입	6.7	4.7	1.6	0.5	1.9	0.5	1.9	0.4	1.5
정부지출	1.3	1.8	0.3	0.8	0.3	0.2	0.4	0.2	0.5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10)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0.0로 전분기보다 2.0 상승함

-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0%를 기록함
-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2.7로 부정적 전망이나 개선되는 모습임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상승한 1.2%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1)]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 지역 ESI[2)]	104.2	104.8	106.2	103.9	104.2	104.2	106.9	108.0	110.0	111.3	111.9
소매판매 증가율[3)](%)	3.1	2.2	0.0	0.7	0.3	0.5	0.9	0.3	1.0	-0.3	-0.5
소비자신뢰지수[4)]	-6.3	-7.8	-6.4	-8.4	-7.9	-8.3	-6.5	-5.5	-2.7	-1.7	-1.5
산업생산 증가율[5)] (%)	2.1	1.4	0.0	0.8	0.0	0.3	1.0	0.1	1.2	0.3	1.4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13]〉

■ 2017년 2/4분기 유럽지역의 실업률은 전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5.9%를 기록함

○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3%p, 0.8%p 하락한 6.4%. 5.8%, 14.8%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주요국과 남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8%임

○ 권역별로 보면, 북유럽과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보다 0.2%p, 0.3%p 하락한 1.4%, 1.3%이고, 남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1.7%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5]			
	주요국[1]	북유럽[2]	동유럽[3]	남유럽[4]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4/4	6.2	6.6	6.5	16.1	1.0	1.6	0.4	0.5
2017년 1/4	6.0	6.5	6.1	15.6	1.8	1.6	1.6	1.7
2017년 2/4	5.9	6.4	5.8	14.8	1.8	1.4	1.3	1.7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0)

13)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실질 GDP	1.7	1.9	0.4	0.6	0.5	0.3	0.4	0.7	0.6
	민간소비	1.7	2.1	0.6	0.6	0.2	0.4	0.6	0.4	0.8
	고정자본투자	1.5	3.1	2.3	1.1	-2.2	2.6	1.8	-0.8	2.0
	수출	5.2	2.6	-0.5	1.0	1.3	-0.2	1.3	1.6	0.7
	수입	5.6	3.9	0.7	1.7	-0.2	0.7	2.5	0.4	1.7
프랑스	실질 GDP	1.1	1.2	0.3	0.6	-0.1	0.2	0.5	0.5	0.5
	민간소비	1.4	2.2	0.2	1.3	0.4	-0.1	0.6	0.1	0.3
	고정자본투자	1.0	2.8	3.1	-0.7	-2.8	3.3	0.1	4.4	-1.4
	수출	4.3	1.8	0.7	0.4	-0.2	0.9	1.2	-0.8	2.4
	수입	5.7	4.2	2.5	0.6	-0.9	2.7	0.8	1.2	0.3
이탈리아	실질 GDP	1.0	0.9	0.3	0.3	0.1	0.3	0.4	0.5	0.3
	민간소비	2.0	1.5	0.3	0.3	0.2	0.3	0.2	0.6	0.2
	고정자본투자	1.9	2.8	0.3	-0.5	0.7	0.8	1.2	-1.5	3.2
	수출	4.4	2.4	1.9	-0.9	1.8	1.0	2.1	1.7	0.0
	수입	6.7	3.1	1.7	-1.0	2.3	1.3	2.5	0.8	1.2
스페인	실질 GDP	3.4	3.3	0.9	0.7	0.8	0.7	0.7	0.8	0.9
	민간소비	3.0	3.0	0.5	1.0	0.6	0.8	0.4	0.6	0.8
	고정자본투자	6.5	3.3	1.4	-0.2	1.5	-0.8	1.2	2.3	0.1
	수출	4.2	4.8	0.8	1.4	2.1	-0.5	1.5	3.4	0.0
	수입	5.9	2.7	-0.2	0.8	1.9	-1.7	0.6	4.3	-0.8
영국	실질 GDP	2.3	1.8	0.7	0.2	0.5	0.4	0.6	0.3	0.3
	민간소비	2.6	2.8	0.4	0.7	0.9	0.5	0.4	0.3	0.2
	고정자본투자	2.8	1.3	5.7	-1.4	-3.9	8.1	-8.4	2.6	-1.8
	수출	5.0	1.1	1.9	-2.4	2.5	-1.9	5.4	-0.3	1.7
	수입	5.1	4.3	3.2	-0.1	0.8	3.0	-0.7	1.0	0.2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0)

〈국채금리〉

■ 2017년 2/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상승한 -0.67%,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하락한 0.31%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0.21%,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2bp 하락한 1.06%임

○ ECB는 2017년 9월 통화정책 정상화 로드맵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함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독일국채 3년물	-0.20	-0.58	-0.68	-0.44	-0.53	-0.66	-0.68	-0.71	-0.67	-0.49	-0.59
독일국채 10년물	0.53	0.14	0.19	0.32	0.12	-0.07	0.19	0.36	0.31	0.54	0.42
영국국채 3년물	0.85	0.39	0.23	0.60	0.57	0.16	0.23	0.22	0.21	0.37	0.25
영국국채 10년물	1.82	1.22	1.25	1.56	1.37	0.72	1.25	1.28	1.06	1.25	1.10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7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7%, 전분기대비 0.6%를 기록함
- ○ 민간소비(2.3%)와 설비투자(17.2%)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8.0%)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2017년 2/4분기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에 그침
- ○ 설비투자는 IT 업종 투자 확대로 17.2%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SOC 예산 감축 및 착공 감소 영향 확대로 8.0% 증가에 그침
- ○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0.5%)의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2.3%)도 민간소비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7% 증가에 그침
- ○ 총취업자 수는 수출 증가 및 건설업 일용직 고용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8%p 상승한 61.2%,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9%를 기록함
- ○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및 신선식품 공급 감소 등에 따른 공급측 상승압력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분기대비 12.0 상승한 106.8을 기록함
- ○ 수출은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6.7%(1,47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 중심으로 18.8%(1,179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은 1.0% 감소함

□ 2017년 2/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2017년 2/4분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소비와 생산 증가세 둔화로 경기회복세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함

가. 경제성장

■ 2017년 2/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0.6% 증가함[14)]

-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거주자 국외소비 중심으로 2.3% 증가함(〈표 25〉 참조)
- ○ 설비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투자를 중심으로 17.2% 증가함(〈표 26〉 참조)
-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 중심으로 8.0% 증가함(〈표 26〉 참조)
-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 중심으로 2.6% 증가함
- ○ 수출은 반도체 및 기계류가 증가하였으나 비거주자 국내소비 감소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및 정밀기기 증가로 6.4% 증가함[15)]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0 (1.3)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2.9 (1.1)	2.7 (0.6)
민간소비	2.2	3.4	2.2	2.3	3.5	2.7	1.5	2.5	2.0	2.3
설비투자	6.0	3.1	4.7	-4.6	-2.9	-3.9	2.0	-2.3	14.4	17.2
건설투자	7.5	9.6	6.6	9.0	10.6	11.2	11.6	10.7	11.3	8.0
지식생산물투자	1.4	2.3	1.8	1.0	2.7	2.7	2.6	2.3	2.7	2.6
수출	-0.4	1.7	-0.1	1.3	2.6	3.4	1.2	2.1	3.9	0.0
수입	2.0	5.0	2.1	3.4	4.8	6.5	3.3	4.5	9.9	6.4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4) 국회예산정책처(2017. 9),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7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0.8% 증가에 그침[16)]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표 29〉 참조)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소비 증가를 제약함

○ 2017년 2/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른 더위,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7월에는 지난해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17)]로 인한 승용차 판매 증가(10.8%)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등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함[18)]
- 8월에는 승용차 판매 증가(14.0%)가 지속되었으나 휴대폰 신제품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한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부진으로 전월보다 낮은 5.6% 증가에 그침[19)]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함

- 7월과 8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4%, 1.7% 감소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에 그침

-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1.1% 감소함

---

16)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유는 순해외소비(거주자 국외소비지출 -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17년 2/4분기 중 5월 황금연휴로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한국개발연구원(2017. 8), "KDI 경제동향")

17)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16년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7월(-11.6%)과 8월(-5.8%)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였음

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31), "'17. 7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17. 9), "KDI 경제동향"

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17. 10), "KDI 경제동향"

〈표 25〉 소비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2)]	7월[2)]	8월[2)]
민간소비	2.3	3.5	2.7	1.5	2.5	2.0	2.3		
소매판매	5.0	5.9	3.5	2.5	4.3	1.9	1.7	3.5	0.8
내구재	6.4	11.1	1.1	0.1	4.5	3.1	4.4	11.8	5.6
* 승용차	8.5	16.5	-9.8	-3.6	2.5	2.6	-5.3	10.8	14.0
준내구재	2.3	4.4	3.5	0.4	2.5	-1.4	-2.1	-2.4	-1.7
비내구재	5.3	3.9	4.9	5.0	4.8	2.6	1.6	1.0	-1.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국민소득」; 통계청,「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IT 부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함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 등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상승함

- 7월과 8월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디스플레이 등 기계류 투자가 이어지며 각각 전년동월대비 25.1%, 13.2%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2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수요 증가 지속 전망과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1)]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함

- 7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함[22)]

-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큰 폭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함[23)]

20)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1) 한국은행(2017. 7),『경제전망보고서』
22) 통계청 보도자료(2017. 8. 31), “2017년 7월 산업활동동향”
23)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9), “2017년 8월 산업활동동향”

〈표 26〉 투자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2)]	7월[2)]	8월[2)]
설비투자	-4.6	-2.9	-3.9	2.0	-2.3	14.4	17.2		
설비투자지수	-7.6	0.6	-4.7	5.9	-1.3	18.1	17.7	25.1	13.2
기계류	-13.0	-7.6	0.4	12.0	-2.2	24.5	34.4	32.6	15.3
운송장비	8.3	20.9	-15.7	-6.1	0.9	2.5	-13.5	7.8	7.3
국내기계수주[3)]	-0.6	-3.0	3.3	16.0	3.8	29.0	28.5	38.1	38.1
건설투자	9.0	10.6	11.2	11.6	10.7	11.3	8.0		
건설기성(불변)	13.2	15.8	14.5	17.7	15.4	17.9	13.6	13.2	8.1
건축	22.9	27.1	23.2	28.8	25.7	26.8	22.9	22.3	18.2
토목	-3.1	-3.2	-2.3	-1.9	-2.6	-1.0	-7.0	-9.1	-17.0
국내건설수주(경상)	13.9	-6.7	1.3	26.0	8.4	3.6	16.8	-29.5	-3.4
건축	13.5	1.7	3.6	39.7	14.5	-5.0	7.9	-29.1	0.9
토목	15.1	-32.4	-6.4	-6.8	-9.4	31.0	57.2	-31.3	-14.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SOC 예산 감축 및 2016년 이후 건축착공면적 감소의 영향으로[24)]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8.0%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불변)[25)]은 토목 부문 부진이 이어졌으나 민간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함

- 7월 건설기성은 연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둔 민간주택 분양·착공 증가가 반영되어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함[26)]

- 8월 건설기성은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1% 증가에 그침[27)]

24) 한국은행(2017. 9. 7),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25)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6) 국회예산정책처(2017. 9), 『NABO 경제동향&이슈』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발전·통신 등 토목 부문이 개선되어 16.8% 증가함

- 7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29.5% 감소함
- 8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이 0.9% 증가에 그친 가운데 토목 부문의 감소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함

〈산업생산〉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의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민간소비 관련 서비업 생산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2.6% 증가함

○ 2017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재고조정과 설비보수 등으로 반도체와 석유정제 부문이 조정을 받으며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침[28)]

- 7월 광공업 생산은 ICT 부문의 조정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 8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증가,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29)]

○ 2017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시장 호조, 주택매매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보험업(6.6%), 부동산 및 임대업(5.7%)이 확대되었으나 도소매업(0.4%), 숙박 및 음식점업(△3.1%) 등의 부진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침[30)]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3.9%)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소매업(1.4%), 부동산 및 임대업(5.8%)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1.2%)이 증가 전환하였으나 도소매업(0.5%), 숙박 및 음식점업(△3.9%)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28), "'17.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29), "'17. 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28), "'17.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2)]	7월[2)]	8월[2)]
전산업 생산[3)]	2.1	3.2	3.0	3.5	3.0	3.9	2.7	2.0	2.6
광공업	-0.3	0.7	0.5	2.8	1.0	3.7	0.5	-0.2	2.7
제조업	-0.5	0.9	0.6	2.9	1.0	3.8	0.4	-0.4	2.9
자동차	0.0	-3.5	-10.4	1.8	-2.8	0.4	-1.0	0.8	14.8
ICT	0.1	7.0	8.3	4.1	5.0	8.6	-2.2	-4.3	5.3
서비스업	2.8	3.5	3.6	2.1	3.0	2.6	2.3	2.2	2.1
도매 및 소매업	2.9	4.1	2.7	2.2	3.0	1.2	0.4	1.4	0.5
운수업	1.8	4.1	3.5	-1.5	1.9	-0.3	0.0	-0.3	1.2
숙박 및 음식점업	-0.6	1.8	1.0	-3.9	-0.5	-4.0	-3.1	-3.9	-3.9
금융 및 보험업	6.4	4.2	6.5	6.5	5.9	6.9	6.6	5.4	4.9
부동산 및 임대업	3.7	-0.2	3.7	2.3	2.3	5.6	5.7	5.8	5.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7년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수출 증가, 건설업 일용직 고용 확대,[31)]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32)]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3.9%를 기록함

○ 7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 인력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용직 중심의 건설업 고용 둔화,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0.8% 증가에 그침[33)]

31) 건설업은 주택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일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12), "'17. 6월 고용동향"

32) 정년연장,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잔류 등의 영향으로 5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
- 5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6 (1/4) 2.9, (2/4) 2.8, (3/4) 3.3, (4/4) 4.1, '17 (1/4) 4.5, (2/4) 4.0 ((한국은행(2017. 7), 『경제전망보고서』; 통계청)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 2017년 2/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구직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34]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4%, 0.5% 감소함[35]

○ 2017년 2/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61.2%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61.5%를 기록한데 이어 8월에는 61.1%를 나타냄

○ 2017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9%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3.5%, 8월에는 3.6%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은 10.4%로 2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7월에는 9.3%를 나타냈고, 8월에도 9.4%로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함[36]

■ 2017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증가 및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미약한 내수회복세로 자영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 증가세가 둔화됨[37]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7%, 1.3%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38]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으나, 7월과 8월에는 수출 증가 및 전년 동월 낮은 기저로 인해 각각 전년동월대비 1.2%, 0.7% 증가세로 전환함[39]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되어 1.9% 증가에 그침

-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성과 주택 준공물량 증가에 따른 일용직 중심의 고용 확대가 지속되었으나, 내수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졌고, 운수업 등은 감소폭이 확대됨[40]

---

34) 청년 인구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통계청): ('17. 1) △5.2, (2) △5.6, (3) △6.4, (4) △6.8 (5) △7.3 (6) △7.9 (7) △8.3 (8) △8.6

3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36) 2017년 8월 기준,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애로계층(잠재적 실업자)을 반영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1.0%p)으로 상승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4), "'17. 5월 고용동향"

38) 제조업 포함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 7월과 8월에는 잦은 강수 등 기상 여건 악화로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그 외 기타서비스업도 내수 부진, 자영업자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각각 1.1%, 0.8% 증가에 그침[41]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1)]	1.1	1.1	1.2	1.2	1.2	1.4	1.4	1.2	0.8
청년취업자[1)]	1.0	2.1	1.5	0.2	1.2	0.3	0.4	-0.4	-0.5
고용률[2)]	59.1	60.8	61.1	60.7	60.4	59.4	61.2	61.5	61.1
실업률[3)]	4.3	3.8	3.6	3.2	3.7	4.3	3.9	3.5	3.6
청년[4)]실업률[3)]	11.3	10.3	9.3	8.4	9.8	10.8	10.4	9.3	9.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9	-5.7	-5.4	-1.0	-4.4	-2.4	0.3	1.7	1.3
광공업	3.0	1.0	-1.5	-2.3	0.0	-2.4	-0.4	1.2	0.7
제조업	2.9	0.8	-1.6	-2.4	-0.1	-2.5	-0.5	1.1	0.5
SOC[5)] 및 기타서비스업	1.1	1.7	2.3	2.1	1.8	2.5	1.9	1.1	0.8
건설업	-0.5	-1.5	2.1	4.7	1.2	7.6	8.6	5.4	1.8
도·소매, 음식, 숙박	-0.9	0.7	1.8	1.4	0.7	2.2	0.9	-0.5	-0.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5	0.2	0.6	0.5	0.7	-0.7	-1.4	-3.2	-1.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5	3.4	3.3	2.5	2.9	2.8	2.2	2.7	2.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7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및 신선식품 공급 감소에 따른 공급측 상승 압력으로[42]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6%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상품물가는 연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생산시설 복구 지연 등으로 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 및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1.8% 상승함[43]

---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12), "'17. 6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42) 한국은행(2017.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7. 4), "2017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 7월과 8월 중 상품물가는 폭염·폭우 등으로 작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였고 전기·수도·가스가 지난해 하계 전기요금 인하[44]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월대비 2.7%, 3.6% 상승함[45]

○ 2017년 2/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개인서비스가격 중심으로 2.0%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1.9%, 1.8% 상승함

■ 2017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2.0 상승한 106.8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 7월에는 전달보다 0.1 상승한 111.2로 '11년 1월(1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8월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전달보다 1.3 하락한 109.9를 나타냄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1)]

(단위: %)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2)]	99.3	99.9	101.6	97.3	99.5	94.8	106.8	111.2	109.9
소비자물가 상승률[3)]	0.9	0.8	0.7	1.5	1.0	2.1	1.9	2.2	2.6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0	-1.0	-1.1	0.7	-0.6	2.0	1.8	2.7	3.6
농축수산물	3.7	1.1	3.1	7.5	3.8	6.1	6.1	8.6	12.2
공업제품	-1.1	-0.7	-0.5	0.4	-0.5	2.1	1.3	0.7	1.0
전기·수도·가스	-8.2	-7.0	-13.0	-8.7	-9.2	-6.9	-2.4	8.0	8.0
서비스	2.4	2.4	2.2	2.1	2.3	2.1	2.0	1.9	1.8
집세	2.0	1.9	1.8	1.7	1.9	1.7	1.8	1.7	1.6
공공서비스	2.0	1.9	1.0	0.9	1.5	1.0	1.0	1.0	0.9
개인서비스	2.6	2.7	2.8	2.7	2.7	2.7	2.5	2.4	2.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 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44) 2016년 7월~9월 중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18.8%)함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1), "2017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7년 2/4분기 수출은 IT 관련 상품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에 따라[46) 전년동기대비 16.7%(1,47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18.8% 증가(1,179억 달러)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3.9%)이 감소하고, 식료 및 직접소비재(4.8%)와 원료 및 연료(15.2%)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중화학 공업품(18.8%)이 모바일 기기 고(高)사양화, 주력품목 단가 상승,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됨[47)]

- 7월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함
- 8월 수출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87.6억 불)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함[48)]

○ 수입의 경우, 자본재(19.4%)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비재(5.3%)와 원자재(23.2%)는 증가세가 둔화됨

- 7월 수입은 소비재(21.8%)가 금・승용차 등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비중이 큰 원자재(10.7%)와 자본재(19.3%) 증가세가 둔화되어 15.5% 증가함[49)]
- 8월 수입은 자본재(15.0%)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원자재(15.7%)는 원유도입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재(14.8%)는 직접소비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15.3% 증가함[50)]

---

4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8),『2017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동향"
48)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8.6억 불) 및 차세대저장장치(SSD, 5.4억 불)가 사상최대, 복합구조칩집적회로(MCP, 19.5억 불) 등(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동향")
49) 한국은행(2017. 9. 7),『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50) 한국은행(2017. 10. 12),『조사통계월보』, 2017년 9월호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5.0	5.3	10.9	10.6	8.0	9.5	4.8	6.2	5.1
	원료 및 연료	-31.3	-20.5	-16.0	5.0	-16.4	58.5	15.2	3.2	34.2
	경공업 제품	-5.5	-0.8	5.8	1.2	0.2	1.9	-3.9	1.8	36.8
	중화학 공업품	-13.0	-6.1	-5.0	1.5	-5.7	12.8	18.8	23.0	14.6
	전체	-13.7	-6.7	-5.0	1.8	-5.9	14.7	16.7	19.5	17.3
	금액	1,151.9	1,260.2	1,218.5	1,323.6	4,954.3	1,320.9	1,470.7	488.4	470.7
수입	소비재	-2.6	3.4	0.5	2.5	1.0	8.0	5.3	21.8	14.8
	원자재	-25.3	-18.6	-8.7	3.8	-12.8	36.1	23.2	10.7	15.7
	자본재	-7.6	-3.2	-2.5	5.1	-2.0	16.1	19.4	19.3	15.0
	전체	-16.0	-10.1	-5.1	4.1	-6.9	24.0	18.8	15.5	15.3
	금액	938.3	993.0	1,024.6	1,105.9	4,061.9	1,163.3	1,179.3	385.6	404.8
무역수지		213.6	267.2	193.9	217.7	892.3	157.6	291.4	102.9	66.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7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은 중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중국(7.4%)이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미국(0.0%)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로 부진한 반면, 아세안(27.1%)은 고부가 선박 및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생산 증대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51]

- 7월 수출은 중동(△5.4%)과 중남미(△7.6%)를 제외하고 아세안(31.4%)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52]

- 8월 수출은 중동(△0.5%)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국(15.5%)에 대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53]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54] 상승세로 전년동기대비 27.6% 상승하였고,

5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8), 『2017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7. 1), "2017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5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8. 1), "2017년 7월 수출입 현황"
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9. 1), "2017년 8월 수출입 현황"

중국(13.9%), 동남아(21.1%), 일본(20.9%), 미국(26.0%)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7월과 8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6.4%, 37.7% 증가하였으며 중국, 동남아, 미국 등도 증가세를 이어감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1)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5.1	-12.7	-8.0	-0.9	-9.3	17.5	7.4	6.5	15.5
	ASEAN	15.0	-1.3	-1.1	12.5	-0.4	31.5	27.1	31.4	23.5
	미국	13.4	-4.3	-8.8	-3.1	-4.8	-2.1	0.0	7.0	23.1
	EU	9.4	-10.0	-8.4	0.9	-3.1	8.0	36.0	10.3	43.1
	중동	5.3	-22.2	-15.9	4.9	-13.8	2.0	-4.7	-5.4	-0.5
	중남미	5.1	-17.1	-11.7	-8.3	-17.1	11.6	6.7	-7.6	16.5
	일본	4.9	-14.0	3.5	6.1	-4.8	18.8	11.3	4.7	5.2
	전체	100.0	-6.7	-5.0	1.8	-5.9	14.7	16.7	19.5	17.3
수입	중국	21.4	-3.0	-3.4	1.2	-3.6	15.6	13.9	10.8	10.0
	동남아	15.3	-2.4	0.8	4.7	-1.3	16.5	21.1	20.1	16.4
	중동	13.3	-29.9	-12.7	8.4	-21.0	65.7	27.6	16.4	37.7
	EU	12.8	-10.4	-10.3	-4.7	-9.3	8.7	4.5	18.1	1.3
	일본	11.7	-3.7	11.4	19.6	3.5	25.1	20.9	12.1	8.9
	미국	10.6	-1.5	-6.2	5.0	-1.8	19.2	26.0	18.2	24.6
	호주	3.7	-17.5	-13.2	17.4	-7.7	31.8	45.1	42.9	17.8
	전체	100.0	-10.1	-5.1	4.1	-6.9	24.0	18.8	15.5	15.3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7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434.7만 원을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도 전년동기대비 1.0% 줄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친 287.8만 원을 기록함

54) 관세청 보도자료(2017. 9. 15), "2017년 8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배럴): ('17. 3) 55.9, (4) 53.7, (5) 53.8, (6) 51.7, (7) 48.5, (8) 49.4
- 원유 수입단가 증가율(%): ('17. 3) 69.9, (4) 42.7, (5) 27.8, (6) 13.4, (7) 4.0, (8) 10.2

○ 사업소득은 4.1% 증가한 89.1만 원, 재산소득은 12.9% 증가한 1.7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전소득은 1.6% 감소한 44.0만 원을 나타냄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1]

(단위: %, %p, 만 원)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55.5	430.6	444.5	431.2	439.9	459.3	434.7
	증가율	0.8	0.8	0.7	0.2	0.6	0.8	0.9
	실질 증가율[2]	0.0	0.0	-0.1	-1.2	-0.4	-1.2	-1.0
근로소득	금액	302.2	286.3	301.9	290.6	294.8	302.2	287.8
	증가율	0.3	1.9	1.9	0.4	1.0	0.0	0.5
사업소득	금액	84.9	85.6	86.2	86.9	85.9	85.6	89.1
	증가율	3.3	0.2	1.1	2.2	1.5	0.9	4.1
재산소득	금액	1.9	1.5	1.4	1.7	1.6	2.2	1.7
	증가율	-21.0	-9.8	-31.9	-4.4	-18.4	15.2	12.9
이전소득	금액	47.0	44.7	44.6	42.5	44.7	49.5	44.0
	증가율	0.7	3.8	0.4	2.9	2.1	5.3	-1.6
처분가능 소득	금액	370.4	351.9	360.7	354.1	358.8	-	-
	증가율	1.0	1.0	0.7	0.4	0.7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66.9	249.4	257.9	246.8	255.0	-	-
	증가율	0.6	0.0	0.7	-3.2	-0.5	-	-
	실질 증가율[2]	-0.3	-0.9	-0.1	-4.6	-1.5	-	-
흑자액	금액	103.5	102.5	102.8	107.3	103.8	-	-
	증가율	1.9	3.6	0.8	9.7	3.8	-	-
평균소비성향[3]		72.1	70.9	71.5	69.7	71.1	-	-
흑자율[4]		27.9	29.1	28.5	30.3	28.9	-	-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분기 주기 공표에서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7년 2/4분기 경기동향[55]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56]가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57]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최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실물경제활동 간 격차를 나타냄[58]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0.5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8을 기록함
-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 전환하여 전월과 동일한 101.8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며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수입액이 감소하여 전월과 동일한 100.7을 기록함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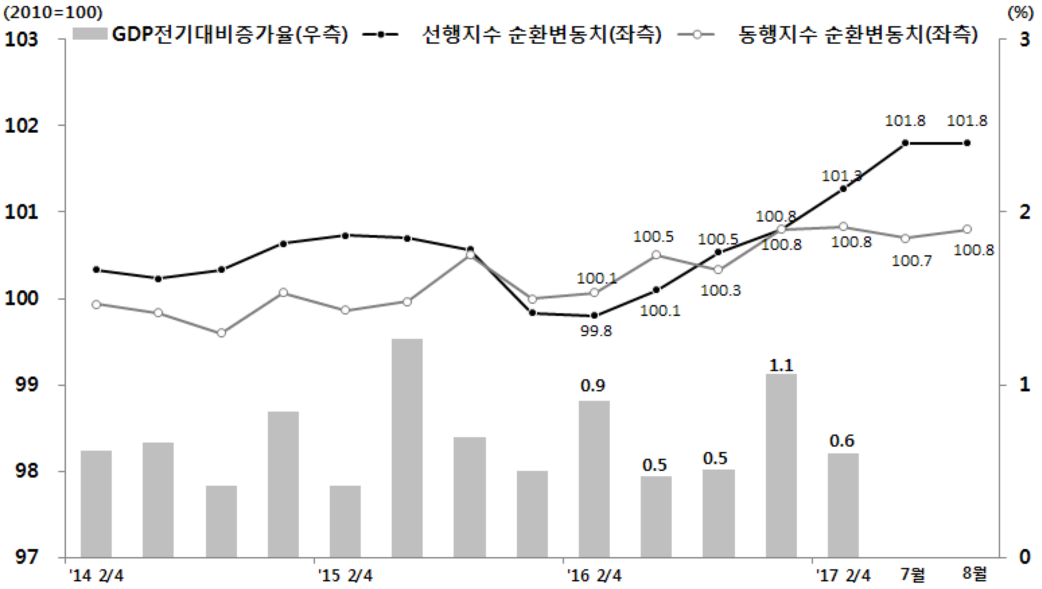
55)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56)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8) 국회예산정책처(2017. 9),『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7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2/4분기 재고율[59)]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1.9), 재고지수 상승(3.8)으로 전분기 대비 6.7%p 상승한 122.0%를 기록함[60)]

○ 7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19.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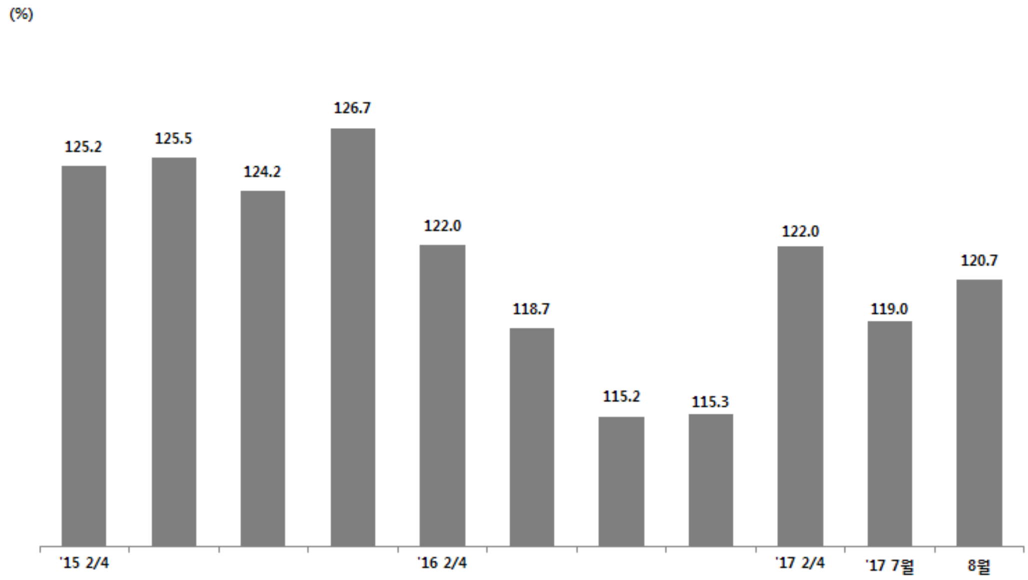
- 7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석유정제,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1.0% 증가함[61)]

○ 8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7%p 상승한 120.7%를 나타냄

- 8월 제조업 출하는 석유정제,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화학제품, 1차금속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차금속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2.0% 증가함[62)]

59)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60) 2017년 4월 ~ 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61) 통계청 보도자료(2017. 8. 31), “2017년 7월 산업활동동향”
62)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9), “2017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1)]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3/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77%, 1.97%, 2.28%로 2017년 2/4분기(1.68%, 1.88%, 2.20%)보다 상승함
- ○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
-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임

□ 2017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32.2원으로 전분기(1,129.4원)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385.43으로 전분기(2,279.26)대비 상승함
-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임
- ○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임

□ 2017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21,148.71으로 전분기(19,618.50)대비 상승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97, 0.91로 전분기(10.70, 0.86)대비 상승함
- ○ KOSPI 보험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도 상승함

〈금리〉

■ 2017년 3/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 2017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완만한 소비회복, 수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8.2 부동산 대책 추이 점검 필요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어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의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 2017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1.39%임(〈표 33〉 참고)

○ 7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9%, 8월과 9월은 각각 1.39%, 1.38%임

■ 2017년 3/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1.77%, 1.97%, 2.28%임(〈표 33〉 참고)

○ 7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63]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67%, 1.86%, 2.17%)보다 상승한 1.74%, 1.94%, 2.25%를 기록함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1.78%, 1.99%, 2.29%를 나타냄

○ 9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외국인 채권 매도 확대 등으로 3년물 1.79%, 5년물 1.99%, 10년물 2.29%로 소폭 상승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25	1.25	1.25	-	-
CD(91일)	1.35	1.44	1.49	1.40	1.39	-0.01	0.04
국고채(3년)	1.26	1.55	1.67	1.68	1.77	0.09	0.51
국고채(5년)	1.29	1.67	1.86	1.88	1.97	0.09	0.68
국고채(10년)	1.44	1.91	2.17	2.20	2.28	0.08	0.84
회사채(3년, AA-)	1.67	1.99	2.15	2.21	2.31	0.10	0.6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1	0.44	0.48	0.53	0.54	0.01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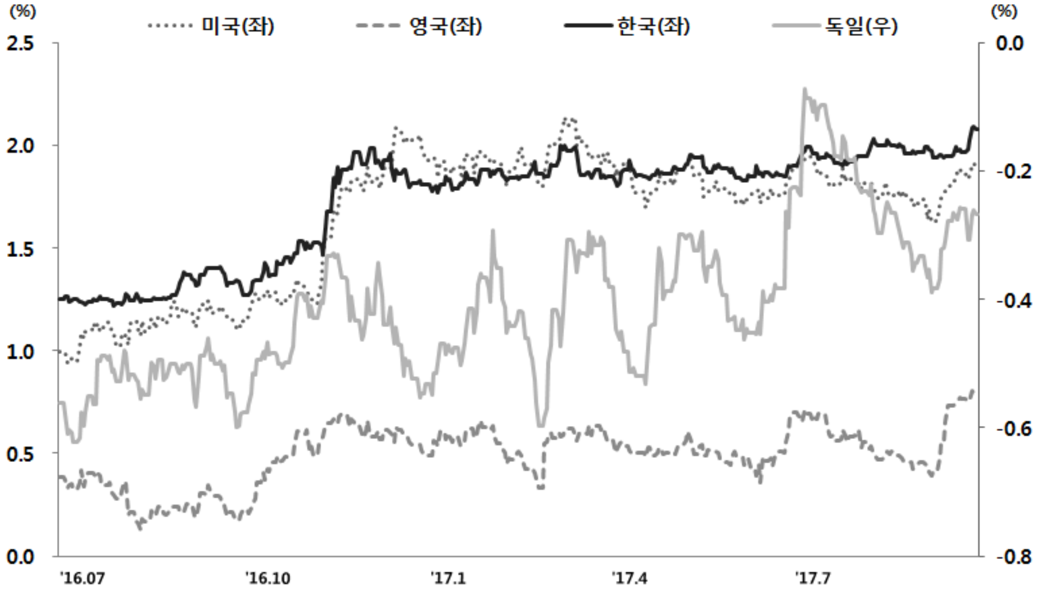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북한 관련 리스크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FOMC 회의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함(〈그림 3〉 참고)

63)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7. 13),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3/4분기 평균 2.31%로 전분기대비 10bp 상승함(〈표 33〉 참고)

○ 7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28%, 8월과 9월은 각각 2.32%, 2.33%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1bp 확대된 평균 54bp임

〈환율〉

■ 2017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2.8원 상승한 평균 1,132.2원임(〈표 34〉 참고)

○ 7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64]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우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로 전월대비 4.4원 상승한 1,134.4원을 기록함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미국 정부 폐쇄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7월보다 3.6원 하락한 1,130.8원임

64) 2017년 1/4분기 GDP가 개인소비지출과 수출 호조로 1.2%에서 1.4%로 상향조정되고 PCE 근원물가도 연준 목표수준인 2.0%를 기록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미국 간의 긴장 지속,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31.6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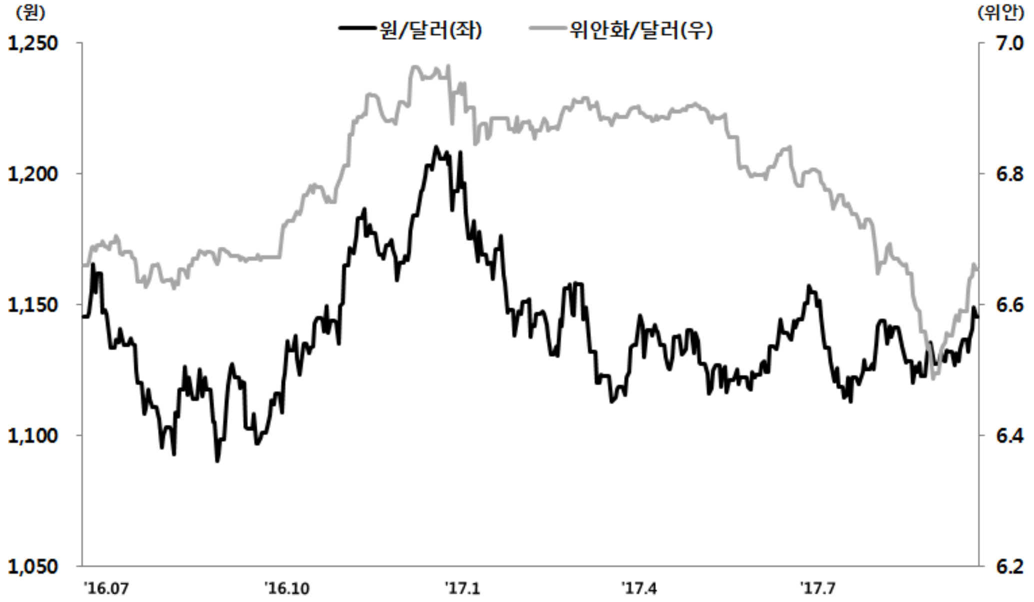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21.4	1,157.4	1,154.3	1,129.4	1,132.2	1,134.4	1,130.8	1,131.6
엔/달러	102.4	109.5	113.7	111.0	111.0	112.5	109.8	110.7
달러/유로	1.116	1.078	1.065	1.101	1.175	1.151	1.182	1.191
위안/달러	6.667	6.833	6.889	6.862	6.671	6.773	6.671	6.567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7년 3/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19위안 하락한 평균 6.671위안을 기록함

○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최근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위안까지 하락하였으며, 원화 역시 약세를 보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3/4분기 달러화는 엔화,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상승함(〈표 34〉 참고)

○ 7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무제한 지정가 국채매입[65]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112.5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ECB의 통화완화 축소 가능성,[66] 그리스의 채권발행 재개[67] 등으로 상승하여 1.151달러를 기록함

○ 8월에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액 축소 등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9.8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제지표 개선,[68]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69] 등의 영향으로 1.182달러를 나타냄

65)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를 0.11% 고정금리에 무제한 매입하기로 결정함
66) 7월 20일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미흡하지만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면 QE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을 표명
67) 그리스 재무부는 7월 25일 5년물 국채(연 4.625%)를 발행하여 30억 유로를 조달함
68)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분기 0.5%(qoq) → 2/4분기 0.6%
CPI 상승률: 6월 1.3% → 8월 1.5%, 근원 CPI 상승률: 6월 1.1% → 8월 1.2%
경기신뢰지수: 6월 109.3 → 8월 111.9, 10년래 최고치 기록
69) 피치는 재정건전성 및 경기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

○ 9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여 110.7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제의 경기회복세 지속 기대[70]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1.191달러임

〈주가〉

■ 2017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279.26보다 상승한 평균 2,385.43임(〈그림 5〉 참고)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372.20보다 상승한 2,412.90을 나타냄

○ 8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72.18로 북한의 괌 공격 계획 성명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7월에 비해 하락함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71.84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 외국인 순매도[71]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함

70)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년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1.9% → 2.2%)
71) 2017년 9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약 1조 6,100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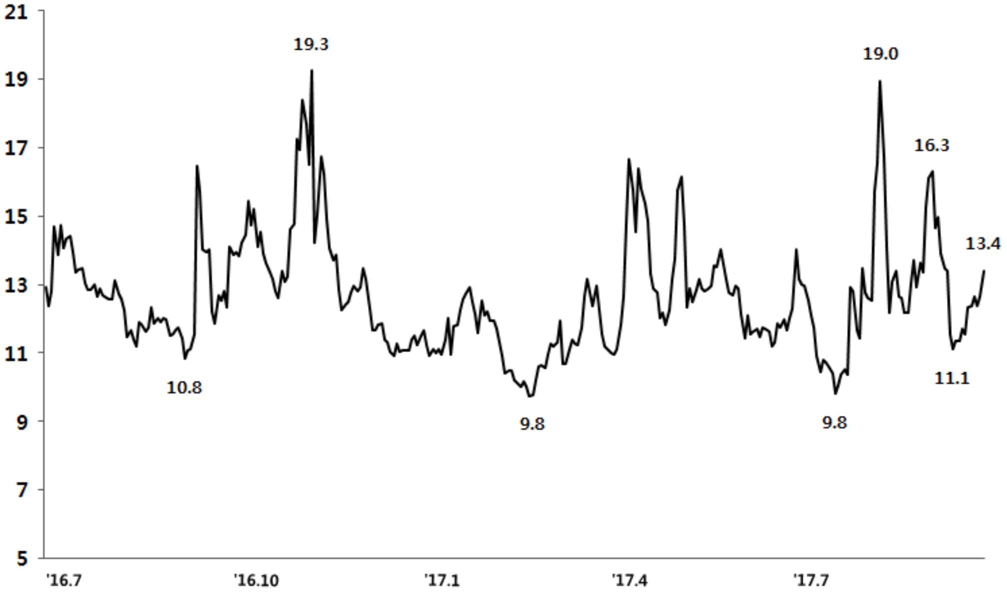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3/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 ·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8월에는 북한의 괌 위협 발언으로 변동성지수가 19.0까지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상승세가 축소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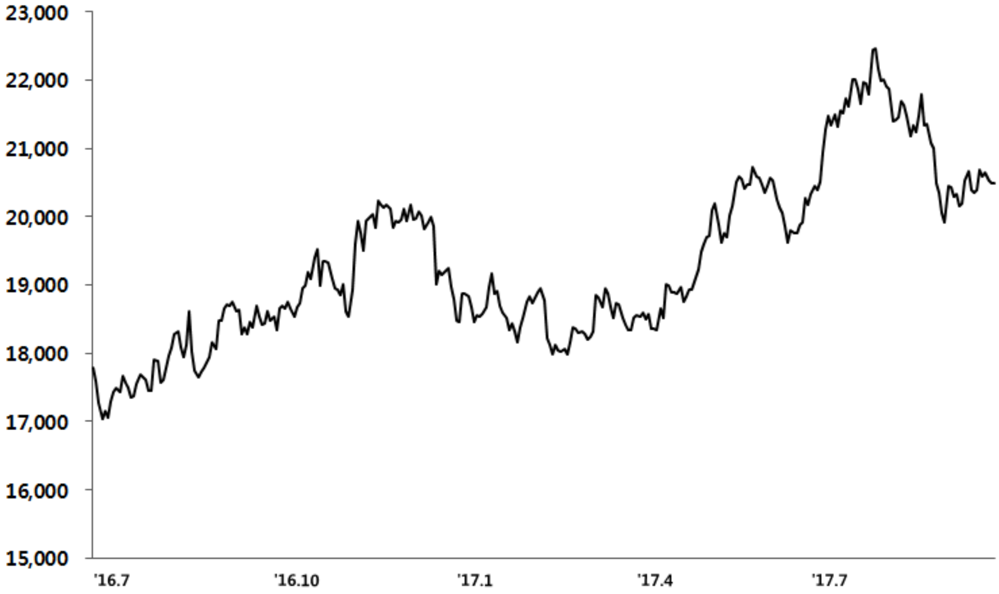
〈보험주가〉

■ 2017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19,618.50보다 상승한 21,148.71임 〈그림 7〉 참고)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와 상반기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72) 발표로 손해보험회사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72) 현행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9)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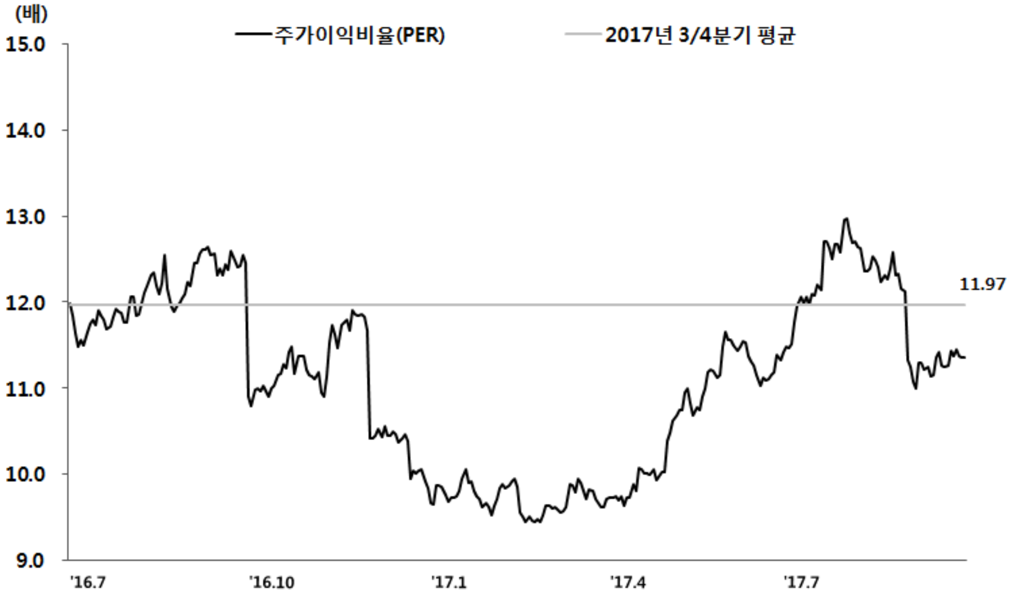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3/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97과 0.91으로 전분기 평균인 10.70과 0.86에 비하여 상승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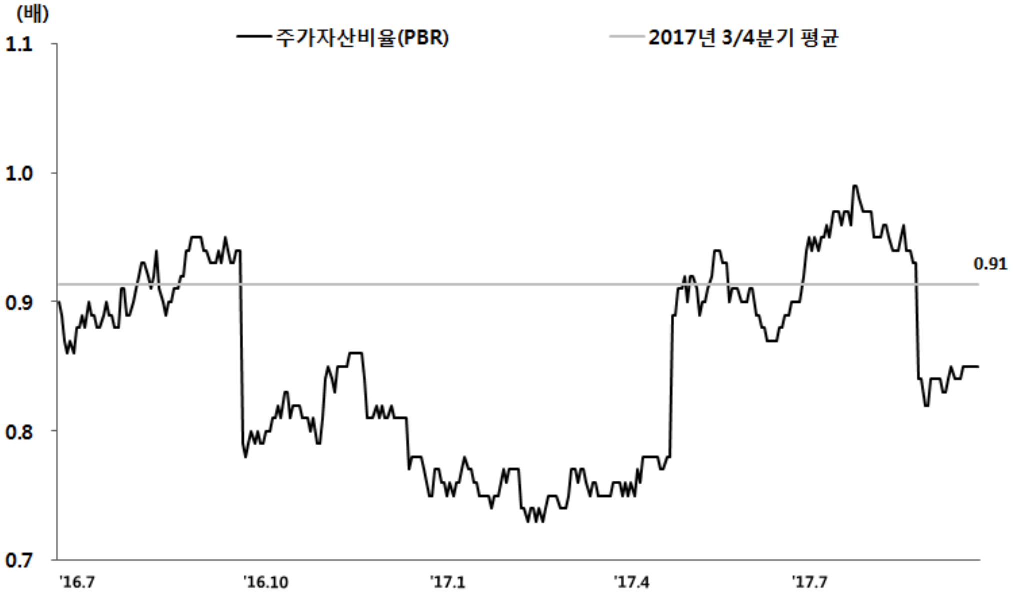
○ 보험지수의 상승으로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 모두 상승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7년 3/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7년 3/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